

# 토정비결

1982년 4월 29일 | 양력 | 남성

토정수

782

## 연운 (한 해의 운세)

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결실의 해입니다. 봄바람에 꽃이 피듯 막혔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운세가 상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귀인으로 작용하니 겸손한 자세로 덕을 쌓으면 더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소망하던 바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

### 1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달입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나보십시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는 것이 올 한 해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

### 2월

재물운이 조금씩 상승하는 기운이 보입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알뜰하게 관리하면 점차 불어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 간의 화목에 신경 쓰면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

### 3월

봄기운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달입니다. 새로운 배움이나 자기계발에 투자하면 뜻밖의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랜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에서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니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 4월

직장이나 사업에서 인정받을 일이 생기는 좋은 달입니다. 묵묵히 해온 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니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십시오. 윗사람의 신임을 얻게 되어 새로운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니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

### 5월

인간관계에서 즐거운 일이 많은 달입니다. 모임이나 경조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자리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되,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면 좋습니다. ##

### 6월

집안 일이나 부동산 관련하여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수리나 정리를 통해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하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재물 관리에 신중을 기하되, 가족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마십시오. ##

### 7월

여름 기운이 왕성하듯 활동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업무나 사업에서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더위를 조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 8월

재물운이 좋아지는 달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재물을 헛되이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여행이나 휴가를 계획한다면 심신의 재충전에 좋은 시기입니다. ##

## 9월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 배움과 관련된 일에 좋은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온 분이라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문서나 계약 관련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니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

## 10월

가을 수확처럼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달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업의 확장 등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면 더욱 큰 복이 따릅니다. ##

## 11월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리는 운이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인연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

##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차분히 세우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감사와 사랑을 나누면, 새해에는 더욱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 \*\*토정의 말씀:\*\*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 하였으니,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덕을 쌓으면 만복이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합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